

# 『法華經』에 있어서 授記의 修行論的 意義 \*

최기표 (금강대 불교학과 교수)

## 국문요약

『법화경』은 장래에 부처가 되리라고 밝히는 성불수기(成佛授記)의 사례가 매우 많이 나오는 경전이다. 여기에는 모든 대중들에게 성불할 것이라고 설하는 일반적인 수기와 특정한 대상에게 성불의 시기와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개별적인 수기가 있다. 『법화경』에서 초반부에 설해지는 내용을 이해한다면 모든 수행자들은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이 된다. 이때 붓다는 일반적 수기를 주지만 이들은 이름뿐인 보살일 뿐 진정으로 보살도를 수행하는 이들은 아니다.

이에 비해 개별적인 수기를 받은 사리불 등은 큰 신앙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환희심이 생겨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수행단계로 보면 최소

\* 이 논문은 일본 릿쇼(立正)대학 법화경문화연구소에서 발행되는 『法華文化研究』 제38호 (2012, 3)에 일본어로 실린 것을 『法華文化研究』 편집자의 허락을 받아 일부 수정 증보하여 재게재하는 것이다.

한 초주(初住), 즉 발심주(發心住)에 오른 보살이다. 이러한 보살들에게 붓다는 성불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기를 준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기란 이름뿐인 보살이 아니라 초주 이상의 보살지에 이르렀을 때 그 ‘신표(信標)’로서 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만 이들 사례와는 다르게 환희심은 물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제바달다는 이미 죽은 뒤여서 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준 것은 그가 사실 악인이 아니라 본래 큰 보살인데 악인의 모습으로 화현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천태대사에 따르면 보살들에게 수기를 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대(大)보살에서 후퇴하여 소(小)보살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깨기 위한 것이다. 소보살이란 10신(信)의 계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 이름뿐인 보살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불의 수기를 준다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켜서 진정한 보살이 되었음을 확정적으로 증명하는 것과, 다시 보리심을 잃지 말고 계속 수행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법화경, 성불수기(成佛授記), 초발심주(初發心住), 제바달다, 가명보살(假名菩薩)

## I. 문제의 제기

『法華經』을 이해하는 핵심 용어로는 보통 天台大師 智顓(538~597)의 견해에 따라 諸法實相과 久遠實成, 그리고 會三歸一과 一大事因緣 등이 거론된다. 즉 佛陀가 성취한 지혜와 능력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의 한도 내에서 밝히면서 모든 중생들이 이러한 불타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려는 불타의 유일한 소망을 설한 것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설해진 불타의 지혜와 능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이어서 대중들이 『법화경』을 청법할 때는 강력한 信仰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授記’이다.

授記의 사례는 여러 대·소승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보면 후세에 받을 과보에 대하여 악도 혹은 천계에 나는 것, 벽지불이 되리라는 것, 부처가 되리라는 것 등 여러 가지를 미리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부처가 되리라고 밝히는 것은 成佛授記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과 형식이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사례로 나타나는 경전은 『법화경』이 가장 대표적이다. 천대대사 智顓은 『법화경』에 나타나는 수기를 三因佛性에 대비하여 正因記, 緣因記, 了因記로 나누었다. 즉 常不輕보살이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앞으로 성불할 것이라고 절하는 것은 정인불성에 대한 수기이고 「법사품」에서 『법화경』에 대해 꽃과 향 등의 10종공양을 하는 이들이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고 설한 것은 연인불성에 대한 수기이며 사리불 등 법화설법을 이해한 이들에게 주는 수기는 요인불성에 대한 수기라는 것이다.<sup>1)</sup> 이렇게 다양한 차원의 수기가 모두 나타난다는 점에서 『법화경』은 佛陀의 경전이고 신앙의 경전이면서 또한 授記의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수기의 범어는 비야카라나(vyākaraṇa)로서 ‘記’ ‘決’ ‘蒞(別)’ 등으로 漢譯된다. 주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授를 더하여 授記, 授決 등으로 표현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受’라는 용어를 더하여 受記, 受決 등으로 사용한다. 또한 단독으로 쓰일 때는 ‘記蒞(別)’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현대의 학자들은 이 용어에 대하여 語源분석이나 用例검토를 거친 뒤 ‘豫言(prophecy)’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범부들도 天眼通

1) 智顓 說, 『法華文句』7상(T34, 97a).

을 얻으면 미래를 예지할 수 있고, 세속에 있어서는 노스트라다무스나 앨빈 토플러 같은 이들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너무 의미가 포괄적이다. 또한 『법화경』에서 나타나는 수기의 역할과 의미 가운데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주요한 내용을 거의 답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섬세하지 못한 풀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묘법연화경』에 나타나는 수기의 여러 가지 양상을 고찰하되 상불경보살 등이 행하는, 조금 막연한 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기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지의의 분류로 한다면 了因記가 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사례들을 분석하여 수기가 갖고 있는 교학적 의미, 수행상의 의미 등을 찾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수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현대적 용어는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法華經』에 나타나는 授記의 제 양상

### 1. 聲聞 제자들에게 대한 授記

『법화경』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수기는 日月燈明佛이 德藏보살에게 행한 「序品」의 사례이다. 그러나 이것은 먼 과거의 일이고 내용도 상세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석가모니불이 행한 수기로서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제3 「譬喻品」에 나오는 舍利弗의 사례가 첫 번째이다. 諸法實相을 十如是로서 여실하게 아는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그간 三乘으로 분별하여 설한 것은 方便이었고 실은 모든 설법이 부처에 이르도록 하는 한 길이라는 會三歸一,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諸佛 出現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一大事因緣의 설법을 듣고 자신도 성불이 가능함을 안 사리불이 될 듯이 기뻐하니 석가모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성불의 수기를 한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미래세에 無量無邊不可思議劫을 지나면서 여러 千萬億佛을 공양하고 정법을 받들며 보살이 행할 도를 다 갖추어 성불하리라. 그 이름은 華光如來……이고 나라 이름은 離垢國이며……시대의 이름은 大寶莊嚴劫이고……회광불의 수명은 12소겁이고……백성들의 수명은 8소겁이니라.<sup>2)</sup>

成佛하기까지 소요되는 수행의 내용과 기간, 성불 때의 佛名과 국토명, 시대명, 佛과 백성들의 수명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용에서는 생략하였지만 성불하며 이룩한 국토의 모습과 제자들의 수행 모습 등도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이는成佛하기까지 보살이 행하는 道로서 묘사되는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중생(의 제도행)을 성취하는”<sup>3)</sup> 모습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華光佛이 입적하면서 다음에 성불할 보살에게 수기하는 상황을 밝히는 것으로 끝이 난다.

석가모니불이 사리불에게 수기한 이후 제6 「授記品」에서는 마하가섭을 비롯하여 네 제자들에게 수기를 하고 제8 「五百弟子授記品」에서는 부루나와 교진여, 그리고 5백 명의 아라한에게 수기를 한다.<sup>4)</sup> 5백 아라

2) 『妙法蓮華經』2 「譬喻品」제3(T9, 11b~c. 이하 『妙法蓮華經』의 『大正藏』(T) 권수는 생략).

3) 제4 「信解品」(16b). “於菩薩法……淨佛國土 成就衆生.”

4) 경문을 보면 석존이 마하가섭에게 “이 1천2백 아라한에게…아눅다라삼막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하고 말하고 실제로는 우루빈나가섭 등 5백 아라한에게 수기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지의는 “마지막 1항 반의 계승에서 7백 명에게 한꺼번에 수기를 주었으므로 1천2백”이 충족된다고 해석하였다(『法華文句』8上, T34, 106b). 해당 계승을 보면 “나머지 성문 대중들도 역시 이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언급만으로는 7백 명이 5백 아라한과 마찬가지로 차례로 보명여

한들 가운데는 優樓頻螺迦葉·伽耶迦葉·那提迦葉 등 傳法 초기에 신통력으로 교화한 가섭 3형제와 가류타이·우타이·아누루타·이바다·점빈나·박구라·주타·사가타 등 도합 11명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교진여와 같이 명호를 普明佛이라 하고 차례로 성불하면서 다음 사람에게 수기를 준다고 한다.

제9 「授學無學人記品」에서는 아난과 라후라에게 수기를 하고 이어서 有學地와 無學地에 있는 비구 2천명에게 수기를 한다. 이 2천명의 聖人들은 동시에 지방의 여러 나라에서 각각 성불하는데 명호를 똑같이 寶相佛이라고 한다.

성문 제자 가운데 근기가 뛰어난 이들에 대한 수기가 끝난 뒤 『법화경』을 전하는 法師의 자세를 설하고 설법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보여래의 全身이 있는 보탑이 출현한 뒤 제바달다와 비구니들에 대한 수기가 이루어진다. 제바달다의 경우 과거 그가 阿私仙人이었을 때 석가모니 불의 前身 보살에게 『법화경』을 설한 인연을 밝힌 뒤 그가 무량겁을 지난 뒤 天王佛이라는 명호로 성불할 것을 수기한다. 이어서 제13 「권지품」에서 마하파사파제와 유학·무학지의 비구니 6천명이 차례로 一切衆生喜見佛이라는 명호로 성불하리라는 것과 耶輸陀羅 역시 具足千萬光相佛이라는 명호로 성불할 것을 수기한다.

이들이 수기를 받는 내용을 보면 受記者가 성불할 때 ①부처님 명호[佛名] ②시대의 이름[劫名] ③나라의 이름[國名] ④국토의 아름다움[國土莊嚴] ⑤제자들의 수와 종류[成就衆生] ⑥如來의 수명 ⑦법이 머무는 기간[正法과 像法] 등이 있다. 한두 가지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3백만억불[마하가

래로 성불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명호를 밝히지 않는 일반적 수기를 준 것인지 불명확하여 숫자에서 제외하였다.

섭], 3백만억나유타불[수보리], 8천억불과 2만억불[대가전연], 8천불과 2백만억불[대목건련] 등 모두 천문학적으로 큰 숫자이긴 하여도 일정한 수의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고 공양한 뒤 성불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성불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밝혀 있는 것이다. 다만 제바달다만은 그냥 “무량겁을 지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다른 사례와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제바달다에 대한 수기는 여러 가지 정황이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문 제자들에게 대한 수기 내용을 주요 내용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석가모니불의 聲聞에 대한 구체적 授記 현황

차례	受記者	공양하는 佛의 수	佛名	國名	劫名	品
1	舍利弗	若干千萬億佛	華光	離垢	大寶莊嚴	3.비유품
2	摩訶迦葉	3백만억불	光明	光德	大莊嚴	6.수기품
	須菩提	3백만억나유타불	名相	寶生	有寶	
	大迦旃延	8천억불+2만억불	闍鞞那是金光 <sup>1)</sup>			
	大目犍連	8천불+2백만억불	多摩羅跋耨檀香	意樂	喜滿	
3	富樓那	無量無邊불	法明	善淨	寶明	8.오백제자 수기품
	憍陳如	6만2천억불	普明	*차례로 성불		
4	阿難	62억불	山海慧自在通王	常立勝幡	妙音遍滿	9.수학무학 인기품
	羅睺羅	10世界微塵數불	蹈七寶華			
	학무학 2천인	50世界微塵數불	寶相	*시방에서 동시성불		
5	提婆達多	(過無量劫)	天王	天道		12.제바품
6	摩訶波闍波提, 6천비구니	6만8천억불	一切衆生喜見	*차례로 성불		13.권지품
	耶輸陀羅	백천만억불	具足千萬光相	善國		

<sup>1)</sup>長行에서는 염부나제금광불이지만 偈頌에서는 염부금광불임.

<sup>2)</sup>우루빈나가섭 · 가야가섭 · 나제가섭 · 가류타이 · 우타이 · 아누루타 · 이바다 · 겁빈나 · 박구라 · 주타 · 사가타 등

표에서 보듯 과거나 미래의 일을 제외하고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현재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수기하는 구체적 사례만을 본다면 모두 8천 5백12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모두 출가한 남녀 聲聞 대중이며 보살이나 천신, 아사세왕 등 재가불자들, 그리고 天龍八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기를 주는 정황이 없다. 다만 “佛前에서 법화경 들은 이는 모두 수기를 주리라”하는 일반적 수기만 하였을 뿐이다. 시기와 名號 등에 대한 설명을 동반하여 구체적으로 수기를 받은 이들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사리불 등 23명이다.

## 2. 授記의 조건으로서 歡喜心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많은 법회 참석자 가운데 구체적 내용으로 수기를 받은 이들은 모두 비구와 비구니 등 출가 대중들뿐이다. 이들은 어찌하여 우선적으로 선택되었던 것인가. 그 전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수기를 받은 사리불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묘사가 주목된다.

그때 사리불이 될 듯이 기뻐하며 일어나 합장하고……지금 부처님으로부터 예전에 듣지 못하였던 미증유한 법을 듣고 모든 의심과 후회를 끊고 몸과 뜻이 태연하여 안온함을 속히 얻었으니……<sup>5)</sup>

사리불은 자신도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능력을 성취할 수 있다는 설

5) 제3 「비유품」(10c). “爾時舍利弗 踊躍歡喜 即起合掌……今從佛聞 所未聞未曾有法 斷諸疑悔 身意泰然 快得安隱”

법을 듣고 큰 기쁨을 얻었고 모든 의심과 후회가 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다. 사리불은 이미 三毒을 끊은 아라한이므로 이 환희는 세간의 기쁨이 아니다. 설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그 내용을 깊이 믿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法喜인 것이다. 천태대사는 이에 대해 “법을 이해하는 마음이 안에 있을 때 기쁨(喜)이라 하고 기쁨으로 신체가 동요하는 모양을 뛰는 것(踊躍)이라 한다.”<sup>6)</sup>고 설명하고 있다. 뒤에 나오는 ‘의심과 후회를 끊고’라는 것은 바로 청정한 믿음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에 전개되는 수기에 있어서도 수기를 받는 당사자들은 모두 미증유한 법을 얻어 크게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마하가섭 등 4인 : 發希有心 歡喜踊躍 「신해품」

부루나 외 5백 아라한 : 得未曾有 心淨踊躍……我等歡喜 得未曾有 「오백제자수기품」

아난, 라후라, 2천 제자 : 設得受記 不亦快乎 「수학무학인기품」

이들은 모두 자신의 성불 가능성을 깨닫고 크게 기뻐한 뒤 수기 받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수기는 성불의 수기이므로 달리 표현하면 불타가 성취한 無上の 지혜, 즉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는 것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성문 비구들의 의심 없는 기쁨에 비해 비구니들은 조금 다른 정황을 보이고 있다. 마하파사과제와 6천 명의 비구니, 그리고 아수다라가 수기를 받기 전의 심적 상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자리로부터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세존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6) 智顓 說, 『法華文句』5(T34, 63c). “內解在心名喜 喜動於形名踊躍.”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니 세존께서 교담미에게 고하시되 “어찌하여 근심스러운 빛으로 여래를 보느냐?”<sup>7)</sup>

이들은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기쁜 마음이 생겼으나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근심은 여성의 신분으로서 과연 성불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일 것이다. 하지만 수기를 받고 싶은 욕심에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합장하고 눈을 떼지 않고 있으니 이들의 마음을 안 부처님께서 이들에게도 수기를 하고 있다. 수기를 받은 이후에 “모두 크게 환희”하고 있음은 물론이니, 수기를 받은 뒤 여성도 성불할 수 있음을 비로소 확신한 것이라 보인다. 비록 근소한 시간 차이는 있으나 성문 비구와 비구니들이 자신의 성불에 대한 확신을 하고 큰 기쁨을 얻는 정황이 묘사되고 있음은 같다고 할 수 있다.

### 3. 제바달다에 대한 수기

이렇듯 여러 비구와 비구니들에 대한 수기 정황이 대체로 같은 데 비해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사례는 제바달다에 대해 수기를 할 때이다. 세존은 사부대중들에게 자신이 과거 無量劫 중에 제바달다에게 『법화경』을 들었던 인연을 이야기한 뒤 제바달다가 무량겁을 지나 天王佛로 성불하리라 말하고는 바로 이 품을 듣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큰 공덕을 받을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즉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할 때 당사자인 제바달다가 수기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보이는 반응에 대하여 기쁨은커녕 아무런 묘사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제바달다

7) 제13 「권지품」(36a). “從座而起 一心合掌 瞻仰尊顏 目不暫捨 於時世尊 告橋曇彌 何故憂色 而視如來”

가 ①수기를 받으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경우 ②법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③참석하였으나 중간에 나간 5천 증상만인에 포함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수기를 받고도 감동이 없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고 「서품」의 참석자 명단에 제바달다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제바달다가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바달다는 별도의 교단을 만들고자 하다가 실패한 뒤 부처님을 살해하려 한 악인이었다. 여러 차례의 살해 기도가 무위로 끝나자 마지막으로 열 손가락의 손톱에 묻힌 맹독으로 여래를 살해하려다가 여래의 처소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 땅에서 큰불이 일어나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 때 제바달다는 순간 뉘우치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南無佛)”를 외치려 하였으나 미처 다 말하지 못하고 “나무”만 말한 채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에 상심한 아난이 제바달다의 미래를 묻자 지옥에서 1겁을 보낸 뒤 여러 천상계에 태어나고 “제바달다가 최후에 목숨을 마칠 때 기쁜 마음을 일으켜 ‘나무’를 칭했으므로” 다시 60겁 뒤에 ‘南無佛’이라는 명호의 벽지불이 될 것이라고 記說하였다.<sup>8)</sup>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제바달다가 ‘기쁜 마음(和悅心)’으로 ‘南無’를 칭했다는 내용이다. 부처님은 그가 죽기 직전 진정이 담긴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한 인연으로 벽지불까지 이를 수 있음을 수기한 것이다. 그가 지은 죄는 五逆罪 가운데 화합승가를 파괴하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이 피를 흘리게 한 세 가지[三逆罪]로서 이로 인하여 1겁 동안이나 지옥에서 고통 받아야 하는 큰 업이었다.<sup>9)</sup> 인용문의 앞에 실려 있는 경전에서는 “제바달다가 조금의 선도 없기 때문에 1겁 동안 죄를 받아

8) 『증일아함경』47 「放牛品」 제9경 (T2, 802b~804c),

9) 제바달다가 三逆罪를 지어 지옥에서 1겁을 머물 것이라고 석가모니가 記別했다는 내용은 『대보살보살경』 「梵行品」에서도 볼 수 있다. 『大正藏』12, 701b 참조.

도 치료할 수 없다”<sup>10)</sup>고 설하기도 하였으나 이 경에서는 아난이 그 1겁 이후의 일을 문자 석가모니는 그가 벽지불까지 이를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비록 큰 죄를 지었어도 부처님께 진심을 담은 기쁜 마음으로 귀의한다면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60겁 뒤에 벽지불로서 과보를 맺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제바달다가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하고 환희심을 냈어도 과보가 벽지불로 끝나고 있는 것은 그가 본 부처님은 藏敎의 부처님, 즉 수명과 지혜가 유한한 부처님으로서 다만 자신보다 한층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설법 대상이 藏敎 근기인 아난이었다는 점도 원인이라고 보인다.

이에 비해서 설법의 내용이 사공간적으로 무한하게 확장되고 온갖 방편적 법문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원만한 법문, 즉 圓敎설법을 담고 있는 『법화경』에서는 인연을 짓는 시기를 제바달다가 석가모니 前身에게 『법화경』을 설한 “過去 無量劫”으로 소급시키고 과보를 맺는 시기를 “무량겁을 지나(過無量劫)”로 더욱 확장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량한 지혜와 수명을 성취한 불타를 설하고 있는 圓敎를 수지한 인연으로 비록 중간에 악업을 짓기는 하였어도 끝내 天王佛로서 성불함을 수기한 것이다. 이 때 제바달다의 태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그가 이미 죽은 뒤에 이 『법화경』이 설해졌고 『아함경』에서 벽지불 수기를 받고 있는 상황과 같이 현장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기를 준 것으로 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큰 환희심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10) 『증일아함경』5 「不逮品」 제10경 (T2, 567b).

### III. 『법화경』의 수기에 대한 제 해석

#### 1. 受記인과 관련한 해석

앞에서 보았듯이 『법화경』을 설하는 가운데 수기를 받은 인물로서 이름이 밝혀진 이들은 출가한 비구와 비구니 23명이다. 이들은 阿羅漢이라 하거나 (有)學地와 無學地の 계위에 이룬 인물로 묘사된다. 無學地란 아라한을 말하고 有學地란 도를 깨쳐서 見道位나 修道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이들은 모두 見道한 聖人으로서 聲聞(srāvaka)이라 불리는 수행자들이다. 다만 『법화경』 가운데 계위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두 인물이 있으니 제바달다와 耶輸陀羅가 그들이다. 제바달다는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야수다라에 대해서 智顓는 무학위, 즉 아라한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1)</sup> 당시 法會에는 이들 외에도 많은 성문들이 있고 또한 더 많은 성취를 이룬 보살들도 있는데 어찌하여 이들만 특기하여 수기를 받은 것일까?

世親은 『法華論』에서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성문과 받을 수 없는 성문을 구별하고 있다. 성문에 決定·增上慢·退菩提心·應化聲聞의 네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퇴보리심성문과 응화성문의 두 부류에게는 수기를 하고 결정성문과 증상만성문에게는 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2)</sup> 이 해석에 의하면 수기를 받은 성문들은 과거에 보리심을 일으켰다가 퇴전한 성문이거나 본래 보살이지만 설법을 돕기 위하여 성문의 모습으로 응현한 사람일 것이다. 수기 받은 이들은 이 둘 가운데 어느 부류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11) 『법화문구』(T34, 19c). “耶輸陀羅者……出家爲尼衆之主 位居無學.”

12) 世親, 『妙法蓮華經憂波提舍』下(T26, 9a).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이가 질문을 하자 천태종 9조인 荊溪 湛然(711~782)은 『화엄경』 「입법계품」의 경문을 증거로 들면서 사리불은 응화성문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sup>13)</sup> 『법화경』에서도 세존은 사리불에게 수기를 하면서 “本願을 따라 행하던 도를 기억케 하려 이 대승경을 설하노니”<sup>14)</sup> 하고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원이란 대승심,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서원을 말하므로 사리불은 대승에서 퇴보한 성문임이 명확하다. 또한 아난에 대해서도 과거 空王佛의 처소에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바 있었고 “그 본원이 이와 같아서 수기를 받은 것”이라 하였으므로<sup>15)</sup> 아난 역시 퇴보리심 성문의 한 부류로서 수기를 받은 이라고 할 것이다.

수기를 받은 다른 성문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나 먼 과거 大通智勝佛 시대에 그의 출가 전 아들들이었던 16명의 보살사미 가운데 석가모니의 전신인 막내 사미가 ‘아녹다라삼막삼보리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였고 그 때 교화 받은 중생들이 현재 성문지에 머물러 있는 회중의 대중들이라는 취지의 언급<sup>16)</sup>을 상기하면 이들이 퇴보리심성문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녹다라삼막삼보리법으로 교화’하였다 고만 하였을 뿐 이들이 모두 설법을 듣고 크게 환희하였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 판단을 망설이게 한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법으로 교화 받았어도 이들이 모두 내용을 이해하고 신심을 일으켜 환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천태대사는 이 경문을 주석하면서 현재

13) 湛然, 『法華五百問論』中(X56, 628b).

14) 제3 「비유품」(11b).

15) 제9 「授學無學人記品」(30a).

16) 제7 「化城喻品」(25c). “諸比丘 我等爲沙彌時 各各教化無量百千萬億恒河沙等衆生 從我聞法 爲阿耨多羅三藐三菩提 此諸衆生 于今有住聲聞地者 我常教化阿耨多羅三藐三菩提 是諸人等應以是法 漸入佛道 所以者何 如來智慧 難信難解 爾時所化無量恒河沙等衆生者 汝等諸比丘.”

성문지에 머문 이들은 “(三菩提心에서) 퇴전하여 지금 성문지에 머문 이들”이고, “여래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뒤이은 경문은 이들이 퇴전한 이유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sup>17)</sup> 이러한 해석에 의거하면 靈山會上에서 석가모니에게 성불 수기를 받은 성문들은 모두 퇴보리심 성문으로서 자신들의 오래 전 本願을 기억해 내고 다시 환희하면서 새롭게 보리심을 일으킨 경우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단 한 명의 인물, 환희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전혀 밝혀 있지 않은 제바달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단서로서 『대반열반경』의 언급이 주목된다. 迦葉菩薩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제바달다에 대한 일을 묻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제바달다는…… 승가를 파괴하거나 佛身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지 않았고……一闍提가 아니고 聲聞이나 辟支佛도 아니다. 선남자여, 제바달다는 진실로 聲聞이나 緣覺의 경계가 아니요 오직 부처님들만이 알고 보는 경계이다.<sup>18)</sup>

현실적으로 제바달다는 승가를 파괴하고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게 하였음에도 실은 그러한 업을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이 설법 바로 앞에 대자비심이 있는 보살이 중생들을 욕하거나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것은 방편으로 인한 것이므로 실제로 악업을 짓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문맥으로 보아 인용문의 취지는 제바달다가 행한 악행은 방편이었고 진실로 악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문이나 벽지불이

17) 『法華文句』7下(T34, 100a). “此諸衆生 退轉者 今住聲聞……三所以者何下 釋退住意.”

18) (新譯)『大般涅槃經』15 「梵行品」(T12, 703b). “提婆達多……亦不壞僧 出佛身血……非一闍提 亦非聲聞辟支佛也 善男子 提婆達多者 實非聲聞緣覺境界 唯是諸佛之所知見.”

아니라는 것 역시 제바달다가 실은 보살이지만 방편으로 성문 비구의 몸을 보인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師子吼菩薩品」에서도 보살이 信心을 완전히 갖추기 위한 내용으로서 “여래께서는 生老病死와 고행을 겪었다는 것, 제바달다가 진실로 승가를 파괴하고 佛身의 몸에서 피가 나게 했다는 것” 등을 믿지 않는 것<sup>19)</sup>이 포함된다는 설법이 있다.

천태대사의 교판에 의하면 方便과 眞實, 佛性和 如來의 常住不變 등에 대해서 밝힌 『법화경』 설법 뒤에 마지막으로 종합하여 설해진 것이 『열반경』임을 감안하면 위 인용문의 내용은 방편을 거두고 진실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바달다 보살이 방편으로 시현한 應化聲聞으로서 먼 과거에 『법화경』을 수지한 공덕이 있고 그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른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수기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바달다에게 준 수기가 “여래께서 원망과 미움이 없음을 보인 것”<sup>20)</sup>이라는 世親의 해석은 부처님에게 무한한 자비가 있어서 모든 악업에 대한 미움이 없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방편행을 보인 보살에 대해 미움이 없음을 보인 것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수행단계와 관련한 해석

앞에서 보았듯이 제바달다를 제외하고는 수기 받은 이들은 한결같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펼쩍펼쩍 펼 정도의 큰 환희심(歡喜踊躍)을 일으킨 사람들이었다. 경전에서도 “법화경의 한 계승, 한 구절이라도 듣고 내

19) (新譯)『大般涅槃經』29 「師子吼菩薩品」(T12, 794c). “不信如來生老病死及修苦行提婆達多眞實破僧出佛身血……”

20) 世親, 『妙法蓮華經憂波提舍』下(T26, 9a). “如來與彼提婆達多授別記者示現如來無怨惡故.”

지는 一念이라도 隨喜하는 이들은 내가 모두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는 수기를 준다”<sup>21)</sup>고 하고 있다. 큰 환희를 일으키는 것이 성불수기를 주는 조건이 되는 셈인데 과연 어떠한 환희이기에 그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사리불 등 성문 제자들이 법문을 듣고 일으킨 환희심은 세속에서 얻는 즐거움, 즉 ‘苦’의 상대로서 ‘樂’은 아니다. 이미 三毒心을 완전히 버리고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의 환희심은 “제 마음은 크게 환희하여 의심과 후회를 영영 다하였습니다.”<sup>22)</sup>라는 사리불의 고백처럼 의심과 후회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생기는 기쁨이다. 이때의 의심과 후회란 무엇에 대한 의심이고 후회일까?

앞의 「방편품」에서 설해진 내용은 十如是로 설명되는 諸法實相을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능력, 모든 중생들이 이러한 佛知見을 얻기 위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一大事因緣, 그리고 모든 가르침이 佛道의 길로 이어진다는 會三歸一이 핵심이었다. 성문제자들은 無問自說로 행해진 佛智慧를 듣고 부처님이 성취한 능력과 지혜에 대한 의문을, 그리고 一大事因緣과 會三歸一의 설법을 듣고 자신들이 그러한 성취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의심을 완전히 끊었던 것이다. 즉 법에 대한 이해[解], 부처님과 자신의 성불 가능성에 대한 믿음[信]이 생겼음을 “의심이 끊어졌다.”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회란 자신들이 이미 보살도에 대한 법문을 들었음에도 그것은 자신의 본분이 아니라고 여겨 이를 실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이다. 「신해품」에서 수보리 등 4대 제자는 “세존께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법에 대해) 설법하신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저희는 자리에 있으면서도……보살법

21) 제10 「法師品」(30c). “聞妙法華經 一偈一句 乃至一念隨喜者 我皆與授記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22) 「비유품」(11b). “我心大歡喜 疑悔永已盡”

에 대해서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sup>23)</sup>하고 고백하고 있다. 수보리는 『반야경』에서 부처님을 대신하여 대승 보살법을 설하는 등<sup>24)</sup> 이미 보살도에 대해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에 나서지 않았으니 이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깊은 이해와 信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歡喜는 바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는 發菩提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진정한 해탈과 열반의 방법을 알고도 그것을 얻고자 서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방법이나 그것을 성취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일으킨 환희심은 깊은 이해와 신심, 그리고 菩提心을 일으켰음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승에 대한 발심, 다시 말하면 成佛에 대한 法欲을 확립하는 것에 대해 잘 밝혀놓은 『대승기신론』에 의하면 信成就發心, 解行發心, 證發心 등 세 가지 발심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元曉는 信成就發心은 十信을 채우고 初住位에 들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舍利弗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석하고 있다. 특히 그가 不退地인 제7住에 미처 이르지 못하여 중간에 退菩提心을 겪었던 것이라고 밝혀<sup>25)</sup> 앞서 사리불이 퇴보리심 성문으로서 수기를 받은 사례라고 한 것과 부합된다. 信成就發心, 즉 信心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은 信-念-精進……戒-願의 열 단계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不退의 자리인 제6信을 이미 지났음을 의미한다. 법화 설법에 대한 信心이 어느 정도 깊이를 갖는 것인지 이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23) 「신해품」(16b). “世尊往昔 說法既久 我時在座……於菩薩法……心不喜樂.”

24) (小品) 『摩訶般若波羅蜜經』1(T8, 537b). “爾時 佛告須菩提 汝樂說者 爲諸菩薩 說所應成就 般若波羅蜜.”

25) 元曉, 『起信論疏』(T44, 220b).

이러한 성취를 이루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하겠다는 마음, 즉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것은 곧 보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52위의 보살계위, 智顓에 의하면 別敎의 보살계위로 말한다면 初信부터 제10信까지는 假名菩薩이라 하고 보리심을 일으켜 初發心住에 오른 보살이라야 진실한 보살이라고 한다.<sup>26)</sup> 그러므로 사리불과 수보리 등의 성문들은 설법을 듣고 큰 환희심을 일으켜 초주위에 오른 진실한 보살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初住位를 달리 歡喜住라 하는 것은 이 환희심과 관련이 있다. 지의도 이들이 “初住의 無生得記의 위계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sup>27)</sup>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성불의 수기를 주는 것은 설법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킨 성문, 다시 말하면 큰 信心을 성취하고 보리심을 일으켜 보살도에 들어간 이에 게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야경』에서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보살들에게 부처님께서 성불의 수기를 하는 사례가 나오고<sup>28)</sup> 『법화경』에서도 “보리심을 일으켜 수기를 받았다”<sup>29)</sup>는 표현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법화문구』에서도 “이 여러 聲聞은 이미 大士를 이루었는데 어찌 하여 이 땅에서 법화경을 널리 전할 수 없습니까?”<sup>30)</sup>하는 질문이 있다. 여기서 성문이란 수기를 받은 5백 아라한과 8천명의 有學 無學人을 가리키고, 大士란 보살을 의미하므로 이들이 이미 보살지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섭 3형제를 비롯하여 수기를 받은 5

26) 『열반경』31 「가섭보살품」(T12, 812b)에서는 보살에 實義菩薩과 假名菩薩의 두 종류가 있다 하였고 『화엄경』36 「보왕여래성기품」(T9, 630a)에서는 가명보살은 화엄경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가명보살이라고 설하고 있다.

27) 『법화문구』9上(T34, 124b).

28) (大品)『摩訶般若波羅蜜經』2 「往生品」(T8, 229b).

29) 제12 「제바달다품」(35c).

30) 『법화문구』8下(T34, 117b).

백 명의 아라한들은 “우리는 이제 실로 ‘보살’이어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수기를 받음을 알았사오니 이러한 인연으로 깊이 환희하며 미증유를 얻었나이다.”<sup>31)</sup> 하고 부처님께 아뢰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보살이 되었기에 수기를 받았고 이로 인해 크게 환희하고 있음을 직접 표현을 통해 보여주는 예증이다.

### 3. 譯語를 통해 본 授記의 언어적 해석

지금까지 석가모니가 성문제자들에게 성불의 수기를 주는 상황과 이유, 그리고 그것이 수행론상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으니 이제 이를 바탕으로 수기라는 단어가 갖는 언어적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겠다.<sup>32)</sup>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수기의 범어는 어원적으로 vy-ā-√kri로 분석되는 비야카라나(vyākaraṇa)이다. 이는 ‘분리(separation)’ ‘구별(distinction)’ ‘판별(discrimination)’ ‘설명(explanation)’ 등으로 번역되며 『법화경』에서 사용할 때는 ‘예언(prediction, prophecy)’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비야카라나가 담고 있는 교리적, 수행론적 함의를 밝히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번역이라고 보인다. 漢譯을 살펴보면 당시 인도, 서역, 중국의 譯經家들은 수기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였는지 추론할 수 있다.

비야카라나를 한역할 때 사용된 용어는 ‘記’ ‘決’ ‘蒞(別)’ 등이 있다.

31) 제8 「五百弟子授記品」(29a). “我今乃知 實是菩薩 得受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 以是因緣 甚大歡喜 得未曾有.”

32) 수기에 대한 대승 경론의 용례들은 홍정식, 「聲聞乘 授記作佛의 意義」, 『불교학보』1(1963)을, 아함부에 나타나는 용례들은 허훈(信空), 「初期佛敎의 授記說 研究」, 동국대 석사논문(2001)을 참조.

이를 동사로 사용할 때는 授記 혹은 受記로 번역하지만 이들이 그대로 명사처럼 사용되는 사례도 다수 있고 記莚(別)로 표현하기도 한다. 초기 역경가로서 于闐 출신인 無羅叉(無叉羅)는 莚과 記를 모두 사용하였고 북인도 출신인 僧伽提婆(Saṃghadeva)와 月支가 고향인 竺法護(Dharmarakṣa)는 決을 주로 사용하면서 莚을 번역어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別로 표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지만 이는 莚과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慧琳은 莚이 맞고 別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sup>33)</sup> 전반적으로 볼 때 鳩摩羅什(Kumārajīva)과 그 이후의 역경가들은 記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마라집 이전에 決과 莚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같은 사람들도 혼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들도 비야카라나에 적합한 번역어를 찾는 데 고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吉藏에 의하면 “決이란 9道 안에서 이 사람이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고 분별하여 결정[分決]하는 것이며 莚 역시 같다.”<sup>34)</sup>고 풀이하고 있고 智顓는 “決은 決定이고 莚은 了莚<sup>35)</sup>이라 설명하였으나 현대적 의미로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한 감이 있다. ‘決’이란 ‘(제방이) 터지다’ ‘결단하다’ ‘확정하다’는 등의 의미가 있고 ‘記’란 ‘기록하다’ ‘기억하다’ ‘印章’ 등의 의미를 갖는다. ‘기록’이나 ‘기억’은 수기의 정황과 맥락이 잘 닿지 않고 ‘決’의 뜻과도 유사하지 않으므로 ‘印章’이라는 뜻을 취하여 유추해 보기로 하자. 인장은 어떤 물건의 소유주를 표시하거나 문서의 권위를 확정할 때 주로 사용한다. ‘확정하다’는 決의 의미와 유사하고 ‘구별(distinction)’ ‘판별(discrimination)’이라는 비야카라나와 의미가 연결된다. 無記가 善性이나 惡性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

33) 慧琳, 『一切經音義』26(T54, 479b), “記莚……分簡也 經文作別 非也.”

34) 吉藏, 『法華義疏』8(T34, 565c), “所言決者 於九道內分決 此人必當成佛 故云決也 莚義亦然記.”

35) 智顓, 『法華文句』7上(T34, 97c).

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주목할 것은 ‘莢’이다. 유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 글자는 의미의 폭이 좁아 그 뜻을 유추하기가 쉽다. 莢이란 ‘모종내다’ ‘符節’ 등의 뜻을 갖는다. 모종을 낸다는 것은 씨앗에서 싹을 틔운 어린 식물을 밭에 심는 것이다. 씨앗 상태로 있으면 싹이 틀지, 언제 틀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싹이 텃고 밭에 심어졌다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어떻게 성장할지 거의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부절’은 신분의 증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印章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며 그것이 갖는 의미 역시 ‘확정’과 맥락이 닿는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記, 決, 莢은 모두 ‘확정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이해된다. 莢은 莢과 혼용되었지만 자체로 ‘판별하다’ ‘정해지다’ ‘符節’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이므로 비야카라나의 역어로서 채택되었을 수도 있다.

佛性은 흔히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種子’로 비유된다.<sup>36)</sup>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이 종자가 싹을 틔운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종자인 상태로 있으면 언제 싹이 트고 꽃을 피울지 알 수가 없으나 싹이 튼 뒤 밭에 옮겨 심어지면 확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리심을 일으키면 오랜 시간이 경과한 미래일지라도 성불의 시기와 모습을 ‘확정적으로 분별하는’ 언질로서 수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符節이라는 의미를 취한다면 수기란 ‘(성불을) 증명하는 信標’를 주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36) 예를 들면 『대반열반경』<sup>25</sup> 「사자후보살품」(T12, 768a). “佛性者 卽是一切諸佛 阿耨多羅三藐三菩提 中道種子.”

#### IV. 결어 - 授記의 意義

『법화경』에는 성불수기의 사례가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들 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을 들은 모든 이들이 성불할 것이라는 일반적 수기이고 두 번째는 성불 시기와 佛名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개별적 수기로서 智顓의 표현에 따르면 通途記와 別與記가 그것이다. 수기에 대한 지의의 또 다른 분류에 따르면 正因記와 緣因記는 통도기가 되고 수행상의 실질적 의미를 갖는 了因記는 별여기로서 수기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법화경』의 전반부, 즉 迹門에서 설해지는 핵심은 三諦圓融한 諸法實相을 남김없이 알고 보는 불타의 지혜와 모든 중생들이 이 지혜로 이끌고자 하는 불타의 一大事因緣, 그리고 그간의 설법이 모두 성불로 인도하는 내용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즉 성문승과 연각승 등의 가르침은 方便일 뿐 모두 불승으로 이끌어진다는 會三歸一을 통해 실질적으로 小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원교적 설법에 따르면 모든 수행자들은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성불의 수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아직 진정으로 보살심을 발하지 않고 이타행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은 假名菩薩이라고 불릴 뿐이다. 이들에게 주는 수기도 각각의 대상을 지목하지 않고 시기와 名號 등도 밝히지 않는 통도기일 뿐으로서 이러한 일반적 수기는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의미만 있을 뿐 수행상의 특별한 의미는 찾기 어렵다.

이에 비해 사리불 등 이름이 밝혀진 23명을 비롯하여 도합 6회에 걸쳐 8천5백12명에게 주어진 授記는 성불의 시기와 명호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수기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설법을 들은 후 큰 信心과 理解를 바탕으로 한 歡喜心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了因佛性이 일정

정도 개발되어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겠다는 보리심을 일으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리심을 발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과 “모든 번뇌를 끊겠다”는 것, 그리고 “모든 법문을 배우겠다는 것”과 “가장 높은 불도를 이루겠다”<sup>37)</sup>는 四弘誓願이 된다. 智顓은 보살의 서원을 이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앞의 두 가지를 大悲의 서원, 뒤의 두 가지를 大慈의 서원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수행단계로 보면 최소한 初住位, 즉 發心住에 오른 보살들이 된다.

이러한 보살들에게 불타는 구체적인 성불의 授記를 준다. 이는 마치 종자 상태인 佛性에서 싹이 터서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미래를 확정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성불할 것을 확정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명보살이 아니라 진정한 보살지에 이르렀을 때 그 ‘信標’로서 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렇게 본다면 수기의 記란 ‘증명’ ‘인가’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한 가지 부연한다면 『법화경』에서 개별적으로 수기를 준 이들을 세친은 退大聲聞, 즉 보리심을 발하였다가 퇴전한 성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은 불타의 설법을 듣고 과거에 자신들도 보살이었음을 자각하여 환희하면서 다시 보살심을 일으킨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지의는 이들에게 수기를 주는 또 하나의 이유로 大菩薩에서 퇴전하여 小菩薩로 돌아가고자 하는 퇴타심을 깨기 위한 것도 있다고 설명한다. 『대지도론』에 小菩薩이란 柔順忍을 익히는 이라 하였는데<sup>38)</sup> 柔順忍이란 性地, 즉 10信位를 가리키므로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 가명보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의 退墮란 대승보살에서 퇴전하여 소승 성문지로 물러남을 말하지만 開三顯一의 설법을 통하여 이미 소승이 없게 되었으므로 지의

37) 『摩訶止觀』5상(T46, 56a). “衆生無邊誓願度 煩惱無數誓願斷……法門無量誓願知 無上佛道誓願成.” 이는 10乘觀法 가운데 發真正菩提心の 내용이다.

38) 『大智度論』71(T25, 557c). “小菩薩所學柔順忍.”

는 소보살이라 표현한다.<sup>39)</sup>

수기를 받는 또 하나의 부류로 세친은 應化聲聞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수기를 받으며 환희심을 일으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제바달다가 속한다. 그는 석가모니불의 교화를 돕기 위해 성문으로 應化한 보살이었으며 이전에 이미 생을 마쳐 靈山會上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결정성문과 증상만성문은 정인불성, 혹은 일부 연인불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근거로 일반적 수기로서 통도기를 받을 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수기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법화의 설법을 듣고 큰 신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十信의 단계에서 보듯이 願을 세우고 굳게 계를 지키는 수행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확고한 보살심을 발했을 때, 즉 수행계위상 초주 이상에 오른 진정한 보살이 되었을 때 불타는 그 ‘증명’으로서 성불의 시기와 명호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수기를 주는 것이다.

39) 『법화문구』7上(T34, 97b). “破欲退大入小菩薩 何者 若定有二乘 可退爲小 今無二乘 何所可退.”

### 참 고 문 헌

- 僧伽提婆 역. 증일아함경. 大正新修大藏經 2권.  
鳩摩羅什 역. (소품) 마하반야바라밀경. 대정신수대장경 8권  
鳩摩羅什 역. (대품) 마하반야바라밀경. 대정신수대장경 8권  
鳩摩羅什 역. 묘법연화경. 대정신수대장경 9권.  
佛馱跋陀羅 역. 대방광불화엄경. 대정신수대장경 9권.  
慧嚴 등 찬. (남본)대반열반경. 대정신수대장경 12권.  
龍樹 造, 구마라집 역. 대지도론. 대정신수대장경 25권.  
世親 釋,菩提留支 등 역. 묘법연화경우바제사. 대정신수대장경 26권.  
智顓 說. 妙法蓮華經文句. 대정신수대장경 34권.  
吉藏. 法華義疏. 대정신수대장경 34권.  
元曉. 起信論疏. 대정신수대장경 44권.  
智顓 說. 摩訶止觀. 대정신수대장경 46권.  
慧琳. 一切經音義. 대정신수대장경 54권.  
湛然. 法華五百問論. CBETA X(續藏經)56.  
홍정식. 聲聞乘 授記作佛의 意義. 佛敎學報 1집, 1963.  
허훈(信空). 初期佛敎의 授記說 研究. 東國大學校 석사학위 논문, 2001.

Abstract

## On the meaning of Vyākaraṇa in the *Lotus Sūtra*

CHOI, Gipyo

*Geumgang University*

Among Buddhist texts, the *Lotus Sūtra* contains numerous instances of Vyākaraṇa, the prediction of becoming a Buddha in the future. In this text, there are two types of Vyākaraṇa: one is the general prediction addressed to all beings concerning their future attainment of Buddhahood, the other one is the individual prediction, given to a specific individual and specifying the concrete time of attaining Buddhahood and the exact name under which the individual will be known as a future Buddha.

All those who understand the doctrinal content set forth in the first half of the *Lotus Sūtra* will become bodhisattvas practising the Mahāyāna teachings. At that time, the Buddha gives them a general prediction, but they are bodhisattvas only by name and not genuine practitioners of the bodhisattva path.

In contrast, those like Śāriputra who received the individual prediction, are those who have produced the awakened mind (bodhicitta) by means of deep faith and understanding. These have at least reached the first of the

ten bodhisattva stages. It is to them that the Buddha gives the individual prediction.

Therefore, this paper interprets the genuine prediction of achieving future Buddhahood as referring not to the general prediction given to titular bodhisattvas, but to the specific prediction given to those bodhisattvas who already reached the first of the ten bodhisattva stages, as a token of faith.

The Buddha's prediction given to Devadatta who didn't have any reaction is an exceptional case which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far from being an evil person, Devadatta actually is a great bodhisattva who merely has manifested himself as an evil person.

Zhiyi(538-597), the founder of the Tiantai tradition, provides an additional reason why prediction is given to bodhisattvas: namely, to prevent great bodhisattvas to revert to the stage of minor bodhisattvas. Minor bodhisattvas refer to titular bodhisattvas. They have reached the ten stages of faith, but have yet to activate the mind of enlightenment.

Therefore, the bestowal of the prediction of attaining Buddhahood is a definite confirmation that one has activated the mind of enlightenment. At the same time, it is an encouragement not to lose the mind of enlightenment and to persevere in one's practice.

**Key Words** : the *Lotus Sūtra*, Vyākaraṇa(the prediction of becoming a Buddha), the first Bodhisattva stage, bodhicitta, Devadatta, titular Bodhisattva.

2013년 6월 5일 투고  
2013년 6월 21일 심사완료  
2013년 6월 24일 게재확정